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계에서 거짓말 사용 양육의 매개효과*Received: October 15, 2023
Revised: November 25, 2023
Accepted: December 2, 2023오성환¹, 이나연², 김한조³, 송현주³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¹, Arizona State University 심리학과/ 박사과정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³교신저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y Ly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sychosocial MaladjustmentE-MAIL:
hsong@yonsei.ac.krSeong Hwan Oh¹, Nayen Lee², Hanjoe Kim³, Hyun-joo So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Master's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Arizona State University/ Doctoral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³*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20S1A5A2A01042840).

ABSTRACT

거짓말 사용 양육(Parenting by Lying)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거짓말 사용 양육은 문화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양육행동의 일환이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관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변인에 선행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만 6-12세 자녀의 부모 195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거짓말 사용 양육, 자녀가 일상에서 보이는 부모 대상 거짓말(Lying to Parents),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모는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보다 많이 언급하며, 이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거짓말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학령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거짓말 사용 양육의 선행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의 존재를 규명한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육스트레스, 거짓말 사용 양육, 부모 대상 거짓말, 자녀 부적응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거짓말 사용 양육(Parenting by Lying; 이하 PL)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Heyman et al., 2009). 가령, 길거리에서 떼를 쓰며 따라오지 않는 아이에게 “지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라고 거짓으로 위협하는 것은 PL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PL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대다수의 양육자가 보이는 행동이자,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양육자의 84%, 중국 양육자의 98%, 싱가포르 양육자의 100%는 양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PL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Heyman et al., 2013; Setoh et al., 2020).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정직함(honesty)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는 점을 볼 때(Engels et al., 2006; Stouthamer-Loeber, 1986), 많은 부모들이 거짓말 사용 양육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PL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순응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양육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일환으로 PL을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다(Heyman et al., 2013).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PL은 자녀로 하여금 거짓말이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Bandura와 Walters(1977)의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근거했을 때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실제로, 아동은 대개 만 3세를 전후하여 거짓말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 여기지만(Lee, 2013; Talwar & Lee, 2008), 성인의 거짓말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거짓말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

지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놀이 상황에서 실험자의 의도적인 속임수에 노출된 바 있는 학령기 아동은 이후 시행에서 실험자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을 더욱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성인의 거짓말을 즉각적으로 학습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Hays & Carver, 2014; Yi et al., 2014). 나아가, 성인의 거짓말은 상호 신뢰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아동의 거짓말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Rotenberg et al., 2012), 일상에서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PL은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모 대상 거짓말(Lying to Parents; 이하 LP)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Engels et al., 2006).

자녀의 LP는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연관성을 보인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거짓말은 낮은 자존감과 스트레스, 죄책감 및 수치심 등 내재화 문제(Engels et al., 2006; Seiter & Brusckhe, 2007; Sheikh & Janoff-Bulman, 2010), 파괴적 문제행동 및 품행장애 등 외현화 문제와 일관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PL은 자녀의 LP를 예측하고, 이어서 자녀의 LP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하나의 이론적 모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PL과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인기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에 경험했던 부모의 PL은 현시점의 LP를 매개하여 대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그리고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싱가포르, 터키 등

에 이르기까지 문화 보편적으로 검증되는 결과임이 지지되고 있다(이나연, 2021; Dodd & Malm, 2023; Jackson et al., 2021; 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학생 자녀로 하여금 아동기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는 회상적 보고(retrospective reports)의 방식을 통해 부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약 10-15년 전의 아동기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한 답변은 부정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등 제3변인이 참가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예: Setoh et al., 2020).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 연구는 만 6-12세 자녀를 현재 양육 중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한 거짓말(LP)을 비롯하여, 부모를 향한 자녀의 거짓말(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형태(parental reports)로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PL이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Jackson, 2021). 즉,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PL이 LP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추정되지만(Heyman et al., 2013), 아직 부모 대상 연구 결과가 한국 문화권에서 반복 검증될 것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터키 등의 비서구 문화권에서도 미국과 같은 서구 문화권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가자들이 영어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거나(Setoh et al., 2020), 서구 문화권과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중동 지역

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Jackson et al., 2021), 한국과 같은 단일 언어 사용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 보편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PL의 영향력을 검증했을 때, 그 결과가 한국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거짓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델(Parenting Stress & Parenting Behavior model; Abidin, 1992)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PL의 선행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은 다양한 개인내적·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현상에 대하여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자녀의 문제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에 선행되는 요인을 함께 탐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Abidin, 1992). 그중에서도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및 자녀 요인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실증적인 연구가 널리 이루어져 온 주제이다(최은아, 2018; Barroso et al., 2018; Dunst, 2022).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으로 정의된다(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가 PL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부재하지만,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온정, 논리적 설명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는 반면, 강압, 개입, 방임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증가한

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손영지, 박성연, 2011; 엄은주 등, 2014; 조다은, 이운경, 2022; Le et al., 2017; Putnick et al., 2008). PL이 자녀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일환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Heyman et al., 2009), 해당 개념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자녀의 비순응적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PL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제안되는데(Heyman et al., 2013), 이러한 내용에 근거할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의 일환인 PL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스트레스와 LP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시도는 부재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자녀의 LP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예: Engels et al., 2006), LP는 문제행동의 일환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을 비롯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며(Stone et al., 2016; Vierhaus et al., 2013), 양육행동은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정, 방옥정, 2005; 최효식 등, 2016; Choi & Becher, 2019).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직접 예측할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하는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해당 변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L이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결과는 성인기(예: Setoh et al., 2020) 및 학령기 자녀(Jackson,

2020) 대상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짓말을 자녀가 학습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달적 요인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빈번한 거짓말이 파괴적 문제행동, 품행장애, 정서 조절의 어려움 등을 예측하는 징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Stouthamer-Loeber, 1986), LP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선행하는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라는 선행변인의 영향력 하에서 PL이 LP를 예측하고, 이어서 LP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각각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델(Abidin, 1992)이라는 이론적 토대 하에서 양육스트레스, PL과 LP, 그리고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PL과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직접효과(direct effect)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는 PL을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는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넷째, 양육스트레스는 PL과 LP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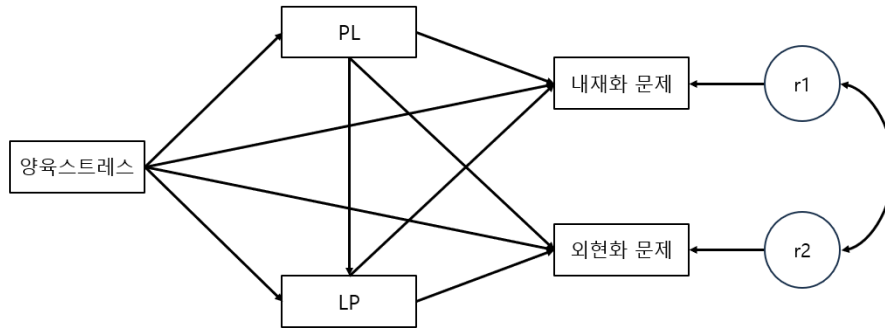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주: r1과 r2는 각각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잔차(residual)를 의미함.)

방 법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Jackson(2021)에 근거하여, 만 6-12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 업체인 DataSpring을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에 대한 소개,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보상 등 사전 안내 사항이 포함된 설명문을 읽고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 완료에 대한 보상으로 850원을 지급받았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이후 진행되었다(7001988-202309-HR-1777-06).

본 연구가 부모 보고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미리 단 한 명의 자녀를 상정하고 모든 설문에 임하도록 사전 안내를 받았다. 설문을 완료한 연구 참여자 수는 총 239명이었으나, 이들 중 자녀 연령이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 = 17$), 부모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 = 17$),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 = 3$),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N = 1$)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후술할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195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부모 42.59세($SD = 4.82$), 자녀 9.45세($SD = 1.79$)였다. 부모의 연령대는 20대 1명(0.5%), 30대 44명(22.6%), 40대 135명(69.2%), 50대 15명(7.7%)으로 분포하였다. 부모의 성별 분포는 아버지 112명(57.4%), 어머니 83명(42.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3명(6.7%), 대학교 재학 3명(1.5%), 대학교 졸업 148명(75.9%), 대학원 재학 이상 31명(15.9%)으로 분포하였다. 월평균 가계 소득 분포는 100만원 미만 3명(1.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명(7.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0명(30.8%),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64명(32.8%),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8명(19.5%), 900만원 이상 15명(7.7%)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종교성에 따라 PL을 행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Setoh et al., 2022), 부모의 종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종교 유형 분포는 종교 없음 117명(60.0%), 개신교 39명(20.0%), 불교 16명(8.2%), 천주교 21명(10.8%), 기타 2명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 성별	남성	112	57.4
	여성	83	42.6
부모 연령	20대	1	0.5
	30대	44	22.6
	40대	135	69.2
	50대	15	7.7
부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6.7
	대학교 재학	3	1.5
	대학교 졸업	148	75.9
부모 월평균 가계 소득	대학원 재학 이상	31	15.9
	100만원 미만	3	1.5
	100-300만원	15	7.7
	300-500만원	60	30.8
부모 종교 유형	500-700만원	64	32.8
	700-900만원	38	19.5
	900만원 이상	15	7.7
부모 종교 유형	없음	117	60.0
	개신교	39	20.0
	불교	16	8.2
	천주교	21	10.8
	기타	2	1.0
자녀 성별	남아	104	53.3
	여아	91	46.7
자녀 출생 순서	첫째	138	70.8
	둘째	48	24.6
	셋째 이상	9	4.6
자녀 연령	6세	12	6.2
	7세	19	9.7
	8세	32	16.4
	9세	31	15.9
	10세	41	21.0
	11세	27	13.8
	12세	33	16.9

N = 195

(1.0%)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 분포는 남아 104명(53.3%), 여아 91명(46.7%)이었으며, 자녀의 출생 순서는 첫째 138명(70.8%), 둘째 48명(24.6%), 셋째 이상 9명(4.6%)으로 분포하였다. 자녀의 연령 분포는 6세 12명(6.2%), 7세 19명(9.7%), 8세 32명(16.4%), 9세 31명(15.9%), 10세 41명(21.0%), 11세 27명(13.8%), 12세 33명(16.9%)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 (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이경숙 등 (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 3가지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등이 존재한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1=거의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alpha coefficients)는 부모의 고통 .87,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87,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89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4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로 양육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거짓말 사용 양육 (PL)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언급하는 거짓말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2021)이 Heyman 등(2013)의 원척도를 토대로 새롭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사전 허락 하에 이중 언어 구사자가 척도를 번역 및 역번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해당 척도는 지난 1개월 동안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Likert식 3점 척도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0=0회, 1=1-2회, 2=3회 이상),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거짓말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시 문항으로는 ‘자녀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 그냥 두고 갈 것이라며 거짓으로 위협한다(예: (실제로는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지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 등이 존재한다. Jackson(2021)에서 보고된 전체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로 PL을 정의하였다.

부모 대상 거짓말 (LP)

자녀가 일상에서 부모에게 보이는 거짓말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2021)이 Engels 등(2006)의

원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이중 언어 구사자가 척도를 번역 및 역번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해당 척도는 자녀의 일상적인 거짓말과 관련된 행동을 묻는 Likert 5점 척도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전혀 하지 않는다, ..., 5=매우 자주 한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빈번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부모님께 완전히 솔직하지 않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등이 존재한다. Jackson(2021)에서 보고된 전체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로 LP를 정의하였다.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하고 오경자 등(2010)이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부모용(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6-18)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해당하는 32문항과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35문항, 총 67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난 6개월 내에 일상에서 자녀가 보인 문제행동에 대한 Likert식 3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남

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 요인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외현화 문제 요인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측정하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로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정의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Amos 29.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등을 확인하였다(표 2). 선행연구(Setoh et al., 2020)와 동일하게, 각 변인의 표준화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 3 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이로 인해 6명의 자료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95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했을 때에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는 달라지지 않았다. 둘째,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Amos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가설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PL,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 analysis)을 통해 간접효과의 크기 및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PL과 LP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하였다. 팬텀변수는 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의 변수로서, 특정한 경로에서의 간접효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Macho & Ledermann, 2011). 이때, 부모의 성별과 연령, 최종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종교 유형, 자녀의 성별과 출생 순서 및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으로서의 양육스트레스, PL,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인	가능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스트레스	1-4	2.01	.43	-.09	.13
거짓말 사용 양육 (PL)	0-2	.55	.38	.61	-.12
부모 대상 거짓말 (LP)	1-5	1.96	.59	.36	-.48
자녀의 내재화 문제	0-2	.28	.25	1.42	1.63
자녀의 외현화 문제	0-2	.22	.23	2.01	4.05

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가 ± 3 이내, 첨도가 ± 8 이내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line, 2005).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PL($r = .21, p = .003$), LP($r = .53, p < .001$), 자녀의 내재화 문제($r = .50, p < .001$) 및 외현화 문제($r = .49,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PL은 LP($r = .34, p < .001$), 자녀의 내재화 문제($r = .35, p < .001$) 및 외현화 문제($r = .41,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LP 역시 자녀의 내재화 문제($r = .46, p < .001$) 및 외현화 문제($r = .55,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스트레스, PL,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의 상호 관련성을 갖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경로별 유의성 검증

본 연구모형은 완전 포화 모델(fully-saturated

model)의 형태를 띠고 있어, 모형 적합도 검증을 생략한 채 경로별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PL,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경로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는 PL을 약 18% 설명하였으며, PL에 유의한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 = .20, p = .001$). 다음으로,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와 PL은 LP를 약 38% 설명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B = .63, p < .001$) 그리고 PL($B = .41, p < .001$) 모두 LP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와 PL, LP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약 38% 설명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B = .21, p < .001$), PL($B = .13, p = .002$), 그리고 LP($B = .08, p = .010$) 모두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을 비롯하여 양육스트레스와 PL, LP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약 45% 설명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B = .13, p < .001$), PL($B = .13, p < .001$), 그리고 LP($B = .12, p < .001$) 모두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1. 양육스트레스	-				
2. 거짓말 사용 양육 (PL)	.21**	-			
3. 부모 대상 거짓말 (LP)	.53***	.34***	-		
4. 자녀의 내재화 문제	.50***	.35***	.46***	-	
5. 자녀의 외현화 문제	.49***	.41***	.55***	.78***	-

** $p < .01$, *** $p < .001$.

표 4. 경로별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i>B</i>	<i>SE</i>	β	<i>t</i>	<i>R</i> ²
양육스트레스 → PL	.20	.06	.22	3.27**	.18
양육스트레스 → LP	.63	.08	.46	7.57***	.38
PL → LP	.41	.10	.26	4.21***	
양육스트레스 → 자녀의 내재화 문제	.21	.04	.36	5.13***	
PL → 자녀의 내재화 문제	.13	.04	.20	3.06**	.38
LP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8	.03	.19	2.57*	
양육스트레스 → 자녀의 외현화 문제	.13	.04	.25	3.79***	
PL → 자녀의 외현화 문제	.13	.04	.22	3.51***	.45
LP → 자녀의 외현화 문제	.12	.03	.30	4.48***	

p* < .05, *p* < .01, ****p* < .001.

보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PL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자녀의 LP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간접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LP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양육스트레스가 PL을 매개하여 LP에

표 5. 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양육스트레스 → PL → LP	.080**	.034	.027	.162
양육스트레스 → PL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26**	.012	.008	.060
양육스트레스 → PL → 자녀의 외현화 문제	.026**	.012	.009	.061
양육스트레스 → LP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50*	.024	.008	.102
양육스트레스 → LP → 자녀의 외현화 문제	.075***	.020	.040	.118
양육스트레스 → PL → LP → 자녀의 내재화 문제	.006*	.005	.001	.020
양육스트레스 → PL → LP → 자녀의 외현화 문제	.010**	.005	.003	.024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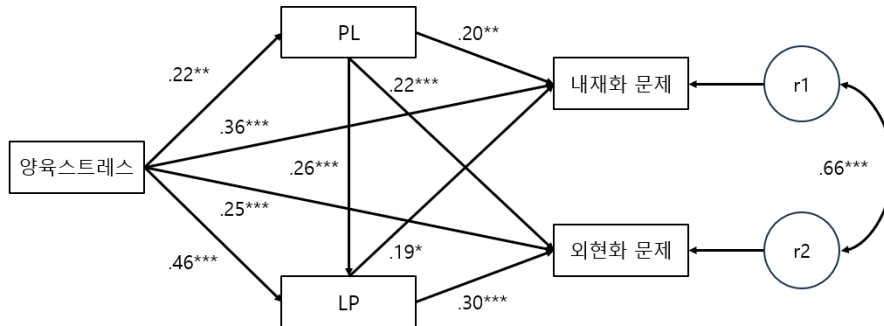


그림 2. 양육스트레스와 PL,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주: 간명성을 위해 통제변인은 본 연구모형에 표시되지 않았음.)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8, p = .002$).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가 PL을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B = .03, p = .002$) 및 외현화 문제($B = .03, p = .002$)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양육스트레스가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B = .05, p = .019$) 및 외현화 문제($B = .08, p < .001$)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가 PL과 LP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B = .01, p = .011$) 및 외현화 문제($B = .01, p = .002$)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PL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LP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선행요인 간의 관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증가시킨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그림 2).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PL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최초의 시도로서, 한국 문화권에서도 PL에 관한 결과가 선

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PL이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하였지만(이나연, 2021; Dodd & Malm, 2023; Jackson et al., 2021; 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 해당 연구는 모두 대학생이 된 성인기 자녀를 대상으로 회상적 보고라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보고의 정확성이 불명확하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가 직접 자신이 자녀에게 하는 거짓말을 보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PL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델(Abidin, 1992)의 관점을 적용하여, PL의 선행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표본을 대상으로 PL과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PL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라는 부모의 개인내적 변인과 PL,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전체적으로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PL과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Stone et al., 2016; Vierhaus et al., 2013)에 더하여, 양육스트레스가 PL과 같은 부적응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최초로 확인하였다. PL이 자녀의 정서 및 행동을 통제하여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Heyman et al., 2009), PL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나연, 2021; Setoh et al., 2020). 실제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온정적인 양육태도보다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Le et al., 2017; Putnick et al., 2008), 이러한 연관성은 양육스트레스와 PL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이라 예상되어 왔다(Heyman et al., 2013).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PL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최초의 시도로서, 해당 결과는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는 PL을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PL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부재하지만, 양육스트레스가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장희정, 방옥정, 2005; 최효식 등, 2016; Choi & Becher, 2019). PL 문항이 다소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예: “지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 PL은 통제적 양육행동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육 상황에서 거짓말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 이러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는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LP,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간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지만,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가 일상에서 보이는 거짓말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징후로도 알려져 있다(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Stouthamer-Loeber, 1986).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더욱 많이 행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자녀의 LP가 증가하게 되는 기제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라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는 PL과 LP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L이 LP를 매개하여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더하여(예: Jackson, 2021),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PL에 영향을 주는 타 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후속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자녀의 기질 및 성격(Le et al., 2017; Solem et al., 2011), 부부갈등(Wieland & Baker, 2010; Xuan et al.,

2018), 사회경제적 어려움(Chung et al., 2020; Stretesky et al., 2020) 등 다양한 개인내적·사회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여,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시도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적 토대로서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델(Abidin, 1992) 하에서 PL이라는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PL, LP,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아동기 PL 경험이 성인기 자녀의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더하여(예: Setoh et al., 2020),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부모의 PL이 현시점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동시적인(concurrent) 관련성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Jackson, 2021). 해당 결과는 비단 성인이 아닌 어린 자녀 또한 부모의 거짓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나타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는 아동기 부모와의 경험이 생애 초기부터 사회 및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 및 논의되어야 할 측면 역시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 선행연구(예: Setoh et al., 2020)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 보고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해당 방법론 또한 응답의 정확성을 완벽히 확보할 수는 없다. 실제 현상과 연구 참여자의 응답 간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PL 척도의 경우 참여자가 응답 시에 고려해야 할 기간을 지난 1개월로 제한

하였지만(Jackson, 2021), 부모와 자녀가 거짓말이라는 현상 자체를 서로 다르게 지각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어느 한쪽의 응답이 보다 객관적인 지표라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변인에 대한 응답을 부모-자녀 쌍으로부터 동시에 수집하는 등의 시도를 기획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PL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 관련성은 본 연구를 비롯하여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지만,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언급하는 PL의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더라도, 부모의 권위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양상의 거짓말(예: “지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에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성격이 덜한 거짓말(예: “이 약 먹어봐, 맛있어.”)에 비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높은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에 비해 강압적 통제(harsh control) 및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Pinquart, 2017a, 2017b),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양육행동의 일환인 PL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서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PL의 유형을 구분한 뒤, 이에 따른 상이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시도를 고려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상관관계를 토대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후속연구에

서는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상정된 개별 경로에 대한 실험연구 혹은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손영지,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 엄은주, 박보경, 도현심, Nishiwaki, R. (2014).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5**(3), 93-118.
<https://doi.org/10.5723/kjcs.2022.43.4.425>
<https://doi.org/10.5723/KJCS.2014.35.3.93>
-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10).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BCL 6-18**. 서울: (주) 휴노.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3-377.
<https://doi.org/10.5723/kjcs.2022.43.4.425>
<https://doi.org/10.18205/kpa.2008.13.3.007>
- 이나연 (2021).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parents' power-assertive parenting by lying on adulthood psychosocial functioning*.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정, 방옥정 (2005).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43-163.
- 조다은, 이운경 (202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령초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3**(4), 425-439.
<https://doi.org/10.5723/kjcs.2022.43.4.425>
- 최은아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7**(4), 193-219.
<https://doi.org/10.5723/kjcs.2022.43.4.425>
<https://doi.org/10.30761/ecoec.2018.17.4.193>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 495-517.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904_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ndura, A., & Walters, R. H. (1977). *Social learning theory* (Vol. 1).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 Barroso, N. E., Mendez, L., Graziano, P. A., & Bagner, D. M. (2018). Parenting stress through the lens of different clinical groups: A systematic review &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6(3), 449-461. <https://doi.org/10.1007/s10802-017-0313-6>
- Choi, J. K., & Becher, E. H. (2019). Supportive coparenting, parenting stress, harsh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nonmarital families. *Family Process*, 58(2), 404-417. <https://doi.org/10.1111/famp.12373>
- Chung, G., Lanier, P., & Wong, P. Y. J. (2020).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harsh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during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in singapore. *Journal of Family Violence*.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07/s10896-020-00200-1>
- Dodd, B., & Malm, E. K. (2023). Effects of Parenting by Lying in Childhood on Adult Lying, Internalizing Behaviors, and Relationship Qualit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4(1), 9-16. <https://doi.org/10.1007/s10578-021-01220-8>
- Dunst, C. J. (2022).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dequacy of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and Psychology Research*, 10(1), 18-30. <https://tudr.org/id/eprint/85>
- Engels, R. C. M. E., Finkenauer, C., & van Kooten, D. C. (2006). Lying behavior, family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6), 949-958. <https://doi.org/10.1007/s10964-006-9082-1>
- Gervais, J., Tremblay, R. E., Desmarais-Gervais, L., & Vitaro, F. (2000). Children's persistent lying, gender differences, and disruptive behaviours: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213-221. <https://doi.org/10.1080/016502500383340>
- Hays, C., & Carver, L. J. (2014). Follow the liar: The effects of adult lies on children's honesty. *Developmental Science*, 17(6), 977-983. <https://doi.org/10.1111/desc.12171>
- Heyman, G. D., Hsu, A. S., Fu, G., & Lee, K. (2013). Instrumental lying by parents in the US and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6), 1176-1184. <https://doi.org/10.1080/00207594.2012.746463>
- Heyman, G. D., Luu, D. H., & Lee, K. (2009).

- Parenting by lying. *Journal of Moral Education*, 38(3), 353-369.
<https://doi.org/10.1080/03057240903101630>
- Jackson, R. (2021). *Exploring the Associations of Parenting by Lying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Dishonesty, and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https://hdl.handle.net/1807/125884>
- Jackson, R., Ekerim-Akbulut, M., Zanette, S., Selçuk, B., & Lee, K. (2021). Parenting by lying in Turkey: Associations with negative psychosocial outcomes and psychopathy in adulthoo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8(1), 1-9.
<https://doi.org/10.1057/s41599-021-00877-9>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Guilford Press.
- Le, Y., Fredman, S. J., & Feinberg, M. E. (2017). Parenting stress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affectivity and harsh parenting: A longitudinal dyadic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6), 679-688.
<https://doi.org/10.1037/fam0000315>
- Lee, K. (2013). Little liars: Development of verbal decep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7(2), 91-96.
<https://doi.org/10.1111/cdep.12023>
- Macho, S., & Ledermann, T.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6(1), 34-43.
<https://doi.org/10.1037/a0021763>
- Pinquart, M. (2017a).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pdated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873-932.
<https://doi.org/10.1037/dev0000295>
- Pinquart, M. (2017b).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in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Marriage & Family Review*, 53(7), 613-640.
<https://doi.org/10.1080/01494929.2016.1247761>
- Putnick, D. L., Bornstein, M. H., Hendricks, C., Painter, K. M., Suwalsky, J. T. D., & Collins, W. A. (2008). Parenting stres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self-concept in Europ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52-762.
<https://doi.org/10.1037/a0013177>
- Rotenberg, K. J., Betts, L. R., Eisner, M., & Ribeaud, D. (2012). Social antecedents of children's trustworthines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3), 310-322.
<https://doi.org/10.1002/icd.751>
- Santos, R. M., Zanette, S., Kwok, S. M., Heyman, G. D., & Lee, K. (2017). Exposure to parenting by lying in childhood:

- Associations with negative outcomes in adulthood. *Frontiers in Psychology*, 8, Article 1240.
<https://doi.org/10.3389/fpsyg.2017.01240>
- Seiter, J. S., & Bruschke, J. (2007). Deception and emotion: The effects of motivation, relationship type, and sex on expected feelings of guilt and shame following acts of deception in United States and Chinese samples. *Communication Studies*, 58(1), 1-16.
<https://doi.org/10.1080/10510970601168624>
- Setoh, P., Santos, R., Zhao, S., Zhang, L., Heyman, G. D., & Lee, K. (2022). Parents with greater religiosity lie less to their children.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4(1), 108-118.
<https://doi.org/10.1037/rel0000377>
- Setoh, P., Zhao, S., Santos, R., Heyman, G. D., & Lee, K. (2020). Parenting by lying in childhood is associated with negative developmental outcomes in adult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89, Article 104680.
<https://doi.org/10.1016/j.jecp.2019.104680>
- Sheikh, S., & Janoff-Bulman, R. (2010). The “shoulds” and “should nots” of moral emotions: A self-regulatory perspective on shame and guil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2), 213-224.
<https://doi.org/10.1177/0146167209356788>
- Solem, M. B., Christophersen, K. A., & Martinussen, M. (2011). Predicting parenting stress: Children's behavioural problems and parents' cop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2(2), 162-180.
<https://doi.org/10.1002/icd.681>
- Stone, L. L., Mares, S. H. W., Otten, R., Engels, R. C. M. E., & Janssens, J. M. A. M. (2016). The co-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1), 76-86.
<https://doi.org/10.1007/s10862-015-9500-3>
- Stouthamer-Loeber, M. (1986). Lying as a problem behavior in children: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8(4), 267-289.
[https://doi.org/10.1016/0272-7358\(86\)90002-4](https://doi.org/10.1016/0272-7358(86)90002-4)
- Stretesky, P. B., Defeyter, M. A., Long, M. A., Ritchie, L. A., & Gill, D. A. (2020). Holiday Hunger and Parental Stress: Evidence from North East England. *Sustainability*, 12(10), 1-18.
<https://doi.org/10.3390/su12104141>
- Talwar, V., & Lee, K. (2008). Social and cognitive correlates of children's ly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9(4), 866-88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8.01164.x>
- Vierhaus, M., Lohaus, A., Schmitz, A. K., & Schoppmeier, M. (2013).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reports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cross-lagged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9-50.

<https://doi.org/10.5539/jedp.v3n1p39>

Wieland, N., & Baker, B. L. (2010). The role of marital quality and spousal support in behaviour problem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7), 620-633.

<https://doi.org/10.1111/j.1365-2788.2010.01293.x>

Xuan, X., Chen, F., Yuan, C., Zhang, X., Luo, Y., Xue, Y., & Wang,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 emotiona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5, 209-216.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8.10.021>

Yi, L., Fan, Y., Li, J., Huang, D., Wang, X., Tan, W., Zou, X., & Lee, K. (2014). Distrust and retaliatory decep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8(12), 1741-1755.

<https://doi.org/10.1016/j.rasd.2014.09.006>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y Ly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sychosocial Maladjustment

Seong Hwan Oh¹ Nayen Lee² Hanjoe Kim³ Hyun-joo So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Master's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Arizona State University/ Doctoral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³

“Parenting by lying” refers to the parenting behavior whereby parents use lies to control their children's emotions and behaviors. This widespread parenting practice is known to predict psychosocial maladjustment among children.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antecedents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y lying, children's lying to their parents, and children's psychosocial maladjustment among 195 parents of children aged 6 to 12.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s with high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lied more frequently, resulting in increased dishonesty among children toward their parents, ultimately contributing to children's psychosocial maladjustment.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identify parenting stress as a preceding factor for parenting by lying among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 parenting stress, parenting by lying, lying to parents, child maladjustment